

광주시청 김국영·고승환 전국체전 육상 '금빛 질주'

이재성 대학부 2관왕 내년 광주시청 입단

지난 항저우 아시안게임 육상에서 동메달을 활짝 한 주역들이 이번 전국체전에서 전 중별 금빛 질주를 선보여 주목을 끌고 있다.

16일 목포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전국체전에서 고승환(광주시청)과 이재성(한국체대)이 나란히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고승환은 이날 오후에 열린 육상 남자 일반부 200m 결선에서 20초 76의 성적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며 금메달을 따냈다.

고승환은 지난해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육상 남자 일반부 200m 결선에서 20초55의 대회 신기록을 세워 우승한 뒤 2연속 1위에 올랐다. 200m 대학부 한국 기록도 2019년 나폴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고승환이 세운 20초68이다.

고승환은 군 제대 후 지난 8월 16일 광주시청에 입단한 뒤 각종 대회에서도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남자 육상 단거리 기대주 이재성(한국체대)도 이날 오전 열린 육상 남자 대학부 200m 결선에서 참가 선수 중 가장 빠른 20초70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따내며 기쁨을 토했다. 참가 선수 중 가장 빠른 기록이자 대학부 대회기록이다.

전날 남자 대학부 100m를 10초32의 기록으로 우승한 터라 이날로 2관왕을 달성했다. 100m와 200m 기록 모두 대학부 대회 기록이다.

이번 전국체전의 남자 일반부 100m에서는 김국영이 이재성보다 0.03초 느린 10초35로, 200m에서는 고승환이 그보다 0.06초 느린 20초76으로 우승했다.

만약 이재성이 일반부에서 경쟁했다면 하더라도 이들을 제치고 금메달 2개를 목에 걸었을 터다.

시상식 뒤 이재성은 "어제 100m에 이어 오늘 200m에서도 좋은 흐름을 이어가 좋은 기록을 냈

다"면서도 "대학부 한국 기록을 못 깬 것은 너무도 아쉽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에는 한국 육상 간판 스프린터 김국영(광주시청)이 남자 100m 왕좌를 되찾으며 건재를 과시했다. 100m 금메달을 포함해 2관왕에 올랐던 제100회 서울 대회 이후 4년 만에 이 종목 금메달을 따냈다.

김국영은 제96회 강원 대회부터 제98회 충북 대회까지 전국체전 남자 100m 3연패를 이뤄낸 바 있다. 김국영은 이 종목 한국 기록(10초07) 보유자다.

올해 대학 4학년인 이재성은 내년에는 김국영, 고승환과 함께 광주광역시청 소속으로 트랙을 달린다.

한편, 이재성은 오는 17일 치러지는 남자 대학부 400m 계주에서 3관왕에 도전한다.

김국영과 고승환도 광주시청 육상팀과 함께 남자 일반부 400m에서 금메달을 노린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고승환



이재성



16일 오후 전남 목포실내수영장에서 열린 경영 남자 일반부 자유형 200m 결선에서 황선우(강원도청)가 우승을 확정짓고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수영 황선우 2관왕

식중독 딛고 자유형 200m 금

한국 수영의 간판 황선우(강원도청)가 제104회 전국체전 두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황선우는 16일 목포실내수영장에서 열린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 수영 남자 일반부 자유형 200m 결선에서 1분45초72로 우승했다.

체력이 다소 떨어진 상태여서 지난달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며 자신이 세웠던 한국 기록(1분44초40)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아시안게임 동메달리스트 이호준(대구광역시청)의 막판 무서운 추격을 따돌리고 1위를 지켰다.

이호준은 1분45초96으로 2위에 올랐다. 3위는 이유연(고양시청·1분48초77)이 차지했다.

황선우가 이번 대회에서 '금빛 역영'을 펼친 건 전날 남자 일반부 계영 800m에 이어 두 번째다.

그는 계영 400m(17일), 자유형 100m(18일), 혼계영 400m(19일)와 시범 경기로 치러지는 일반부 혼성 혼계영 400m(18일)에도 출전한다.

황선우는 대회 개막 직전 식중독으로 탈수, 고열 증세에 시달렸으나 5관왕과 역대 최초 전국체전 3년 연속 최우수선수상(MVP) 수상을 목표로 삼고 대회 출전을 강행했다.

/연합뉴스

끝났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KIA, 오늘 안방서 NC 상대 최종전



5강 싸움에서 탈락한 KIA 타이거즈가 17일 안방에서 NC 다이노스를 상대로 2023시즌 최종전을 치른다.

지난 14일 두산 베어스가 LG전 승리로 마지막 5강 티켓을 거머쥐면서 KIA는 6위를 마무리하게 됐다. 간절하게 기다렸던 '가을잔치' 도전은 끝났지만 시즌은 끝난 게 아니다.

최종전까지 상위권 팀들의 경쟁이 예고되면서 KIA는 전력을 다한 승부를 예고했다. 16일 이의리를 앞세워 NC를 상대한 KIA는 17일에 예정대로 양현종을 선발로 투입한다.

양현종은 최종전 등판에서 두 마리 토끼 사냥에 나선다.

올 시즌 뜨거운 응원을 보내준 홈팬들 앞에서 승리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게 양현종의 우선 목표다. 여기에 170이닝이라는 고지도 남아있다.

양현종은 지난 11일 키움전에서 8이닝 무실점 호투로 승리투수가 되면서 시즌 8승에 성공했다. 승리를 더했지만 단 한 번의 등판 기회만 남으면서 10승에는 실패했다.

대신 양현종의 또 다른 이름인 '이닝' 기록 가능성은 남겨졌다.

앞선 키움전에서 8이닝을 더하면서 양현종의 올 시즌 누적 이닝은 '164'가 됐다. KBO리그 최초로 9시즌 연속 160이닝 기록을 만든 양현종은 '170이닝'까지 넘어설 전망이다.

양현종이 최종전에서 6회까지 책임지던 9시즌 연속 170이닝이라는 대기록이 완성된다.

아쉬움 속에 시즌은 끝나지만 17일 최종전은 2024시즌을 위한 위한 첫걸음이기도 하다.

김중국 감독은 16일 NC와의 경기에서 "많이 아쉽고 팬들에게 죄송하다"고 5강 탈락에 대한 심

경을 밝혔다.

이어 "전체적으로 나부터 더 준비를 잘해야 될 것 같다. 가을 캠프도 준비 잘하고 마음가짐을 단단히 먹고 준비해야 할 것 같다"며 "우리 선수들 열심히 잘 달려왔다. 마지막 두 경기에서 이겨서 팬들에게 기쁨을 드려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또 "최종전 양현종이 선발로 나간다. 다른 팀 바꾼다는 의욕이 없게 최선을 다해서 이기도록 하겠다. 파노니, 산체스도 불펜에서 나갈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선을 다해 승리로 2023 시즌을 마무리하고, 실패를 돌아보면서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야 하는 KIA다.

김중국 감독은 "팀워크는 확실히 결속 된 모습을 보여줬다. 내년 시즌 더 도약할 수 있게 잘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도약을 위해 우선 필요한 부분으로 '선발 안정화'를 꼽았다.

김중국 감독은 "선발 쪽에서 투수들의 안정화가 돼야 전체적으로 긴 페넌트 레이스를 끌고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투수들이 안정화 되는 것이다"며 "투수 선수층이 두터워야 강팀이 될 것 같다"고 마운드를 언급했다.

'마운드'가 우선 과제가 된 만큼 경험 많은 포수 김태군과의 다년 계약은 반가운 소식이 됐다. 이날 KIA는 김태군과 계약 기간 3년에 연봉 20억원 옵션 5억원 등 총 25억원에 계약을 맺었다.

김중국 감독은 "경험 많은 태군이 3년 동안 우리팀과 동행하게 돼서 다행이다. 투수들에게 좋은 효과가 기대되고 어린 선수들에게도 귀감이 될 수 있는 선수다. 강팀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계약이라고 생각한다"며 "팀 퍼스트로 선수들과 융화 잘 되는 것 같고, 잘못된 부분은 확실하게 이야기한다. 경기 출장 경험이 많으니까 내년 시즌부터는 안정적으로 초반부터 갈 수 있을 것 같다. 젊은 선수들 잘 리드해줄 거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포수 김태군과 3년·25억원에 다년 계약

"내년에는 더 높은 곳에 있겠다"

"마지막 팀이라고 생각했다. 내년 시즌에는 더 높은 곳에 있겠다."

내년 시즌에도 KIA 타이거즈의 포수 김태군(34)이다. KIA가 16일 김태군과 계약 기간 3년에 연봉 20억원 옵션 5억원 등 총 25억원에 다년 계약 도장을 찍었다.

지난 2008년 LG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김태군은 NC와 삼성을 거쳐 지난 7월 류지혁과의 트레이드를 통해 KIA 유니폼을 입었다.

프로에서 15시즌을 보낸 김태군은 통산 타율 0.248 25홈런 727안타 301타점과 0.294의 도루 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젊은 투수가 많은 KIA 입장에서는 경험 많은 김태군의 잔류는 큰 전력일 될 전망이다. 김태군도 "마지막 팀"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다.

김태군은 "처음 왔을 때부터 다른 생각 안 했다. 마지막 팀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계약까지 이뤄질 수 있었다. 다른 팀 포수를 생각하면 약할 수도 있지만 나한테는 큰 돈이다"며 "어떻게 준비하고 결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다년 계약 소식은 전했지만 목표했던 '가을잔치'를 팬들에게 선물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다. 김태군은 "마음이 아프다. 선수 모두들 열심히 뛰었다. 나도 야구 16년 차인데 이렇게 140경기 넘으면서까지 순위 싸움을 한 적이 처음이라 모두에게 박수쳐주고 싶다. 부상으로 차포마가 빠졌는데 끝까지 싸울 수 있었다는 게 희망적이지 않구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베테랑에게도 '적용'은 쉽지 않은 과제였다. 시즌 중반 합류를 하면서 적응의 시간을 보냈던 김태군은 2024시즌에는 초반부터 순위 싸움을 이끌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포수를 겸비한 포수 김태군(34·왼쪽)과 다년 계약했다. (KIA 타이거즈 제공)

겠다는 각오다.

김태군은 "변명은 하고 싶지 않지만 팀을 옮긴 선수들은 적응하는 게 힘들다. 야구도 야구인데 적응하는 게 쉽지 않다. 7월에 처음 합류했는데 스프링캠프에서 해야 했던 것들을 하면서 미흡했던 게 있었다. 투수 한 명 한 명과 호흡을 맞춰야 한다"며 "내년에는 기대대로 시작을 하면 좋겠다. 처음부터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 144경기 다 중요하지만 말마나 처음부터 치고 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팀에서는 하던 대로 '강한 선배'로 역할을 이어가겠다는 생각이다.

"내 계약 소식을 듣고 긴장할 선수는 긴장할 것이다"며 웃은 김태군은 "트레이드로 와서 어린 애들한테 한 말은 '나한테는 MZ시대는 안 통한다'였다. 어떻게 야구했는지 모르지만 요즘 MZ의 자유분방함은 안 통하니까 알아서 감당하라고 했다. 자기 표현도 해야 하지만 표현도 줄이고, 감정도 조절할 수 있어야 프로다. 1군에 걸맞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